

Jeffrey Hudon 박사, 성서 고고학, 세션 21, 고고학자가 웃시야의 통치를 바라보다

© 2024 Jeffrey Hudon 및 Ted Hildebrandt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1입니다. 한 고고학자가 웃시야의 통치를 살펴봅니다.

때로는 고고학에서 다소 모호한 성경 본문을 보고 그 시대와 관련된 발굴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정보의 보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내어 성경 기록에서 자주 간과되는 왕인 유다의 웃시야 왕에 대해 발표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8세기는 매우 다사다난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강의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웃시야의 통치를 더 깊이 살펴보고 고고학과 성경 본문이 일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의 통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 줍시다. 따라서 성경 본문은 웃시야가 52년 동안 통치했다고 알려 주는데, 이는 유다 왕 중 두 번째로 긴 통치였으며, 툴레에 따르면 그의 날짜는 기원전 792년부터 740년까지입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핵심 섭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웃시야는 꽤 어려서부터 조연자들과 함께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웃시야의 통치는 또한 북쪽 왕국의 당대 왕인 여로보암 2세와 유사하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는 거의 동일하게 서로 일치했습니다.

웃시야는 여로보암 2세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웃시야의 통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른 왕들처럼 두 가지 출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하 14장이고, 물론 유다 왕들만 기록하는 역대기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웃시야 통치 기간에 살았던 선지자, 기록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리고 이사야라는 아주 어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보다 훨씬 후대의 선지자인 아모스와 스가라는 웃시야 통치 기간에 발생한 지진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사야 2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지진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되었다고 믿습니다. 또는 게셀과 하솔을 포함한 여러 유적지의 고고학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고고학 기록에 나타난 웃시야의 통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연구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역대기는 앞서 다른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매우 후기 작품입니다. 이 책은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졌는데, 그 시기는 6세기 후반, 아마도 기원전 5세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7세기, 18세기, 그리고 확실히 19세기에 서구 문명에서 비판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대기에 보존된 역사적 데이터가 매우 회의적이거나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대기의 연대가 늦기 때문입니다. 5세기 말이나 초에 활동하는 역사가가 어떻게 단지 날짜를 정하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그는 400년 전에 발생한 역사적 데이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공정한 질문입니다. 그는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역사적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둘 다 다윗 왕조의 평행 역사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열왕기에는 없는 데이터, 즉 역대기에 있는 역사적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특히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 열왕기, 유다의 여러 왕에 나타나지 않는 역대기의 데이터를 가진 여러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연대기 기자가 언급하지만 열왕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방어 및 기타 왕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우리는 역대기에는 나오지만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다른 강의에서 그의 요새 도시 목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머내서스의 바빌론 포로 생활과 이후의 건축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웃시야의 통치라는 우리의 주제를 다시

살펴봅니다. 이는 또한 열왕기하 15장의 병행 기록에서 누락된 일부 기록상의 서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데이터가 열왕기에는 없고, 연대기 작성자가 나중에 썼기 때문에 복사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연대기 작성자는 자신의 정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회의주의는 17세기에 특히 바루흐 데 스피노자와 같은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고, 오경뿐만 아니라 역대기와 같은 책들의 진위나 저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학자들, 특히 19세기 빌헬름 마르틴 레베레히트의 저작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de Wette, Graf와 궁극적으로 Julius Welhausen이 1883년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유명한 저작에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론은 20세기에도 계속되었고, 분명히 2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오경에 대한 비판적 검토, 네 가지 출처 기록 가설 이론, 대부분이 독일인인 이들 초기 학자들의 예비 작업이 많았으나 후기 영국과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이 작업에 참여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 가설은 연대기를 살펴보고 연대기를 일종의 테스트 사례로 사용하여 사건에서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300~400년 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자세한 정보를 쓸 수 있는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오경도 비판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역대기는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독일인 Martin Noth와 Peter Velten은 독일인이자 둘 다 Chronicles에서 작업했습니다. 아니, 그는 역대기의 역사성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연대기 작가가 역사적 정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역사적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Velten은 훨씬 더 회의적이었고 Chronicles에 대한 그의 작업은 역사성 측면에서 훨씬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활동적인 영국 학자인 휴 윌리엄슨(Hugh Williamson)과 연대기에도 글을 쓰고 Velten과 Noth와는 달리 고고학적 증거를 훨씬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한 고(故) 앤슨 레이니(Anson Rainey)도 있습니다.

고고학을 훨씬 더 자유롭게 사용하는 Rainey와 Williamson은 그렇게 했으며, 나중에 두 명인 Williamson과 Rainey는 연대기 작가가 군주제 시대의 기록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Kings에 대한 이러한 확장, 이 추가 정보는 그것이 역사적일 수 없다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고학 기록에서 외부 확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들은 그 옵션을 역사적이었다는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특히 이스라엘 핀켈슈타인(Israel Finkelstein)으로부터 연대기의 작업 날짜가 페르시아 시대보다 늦은 하스몬 왕조 시대, 즉 기원전 2세기 말에서 1세기 초로 매우 늦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Finkelstein은 훨씬 더 일찍 글을 쓴 초기 비평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는 웃시야에 관한 고고학적 증거와 연대기의 성경 본문을 살펴보고 이 두 가지 증거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렴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테스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에일랏에 대한 웃시야의 헤게모니, 즉 아카바 만의 에일랏 만에 있는 홍해 항구는 역대하 26장 2절과 열왕기하 14장에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일랏이 텔엘칼리페의 글루엑사이트.

8세기 직업적 증거가 있고, 분명한 8세기 직업적 증거가 있는데, 이는 더 북쪽의 Tamar, Ein Hatziva라고 불리는 유적지와 일치합니다. 물론 에일랏에 대한 헤게모니는 웃시야가 홍해 무역과 항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와 연대기 모두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Rainey는 이것이 웃시야 통치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 여호사밧과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에돔의 견고한 성을 뚫고 실제로 홍해에 항구를 열 수 있었던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따라서 에일랏 만에 요새를 건설하거나 구축하는 것은 실제로 웃시야 통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이것이 Rainey가 이 두 가지 위대한 역사적 작품에 사용하는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는 Eilat 북쪽에 있는 또 다른 요새인 Tell el-Khalifeh 사이의 건축 스타일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말이라는 곳으로, 다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Ein Hatziva입니다. 현대 아랍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해 바로 남쪽, 다시 아라바에 있습니다.

비슷한 문 시스템, 비슷한 구조, 그리고 거의 도시 크기에 가까운 매우 큰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마샤가 통치했거나 나중에 웃시야가 통치했던 유다 사람들의 집결지였을 것입니다. 건축 기술이 남쪽의 텔엘칼리페 유적지와 매우 밀접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은 공통 건축업자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샤가 될 것이고, 칼리페의 경우에는 웃시야가 될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 또 다른 사이트인 Yotvata가 최근 게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물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발견된 어떤 종류의 철기 시대 IIIB 증거도 없습니다. 물론 8세기에 이 두 요새 사이의 도로에서 사용 및 활용된 것은 확실합니다. 서쪽에는 가데스바네아, 즉 아인가데스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 강의에서 이 사이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적지는 1970년대에 루돌프 코헨(Rudolf Cohen)에 의해 발굴되었고 그 이전에는 1956년에 도탄(Dotan)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모퉁이 탑이 있는 거대한 정사각형 요새였으며, 역시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자기에 따르면, 이것은 웃시야 통치 기간에 건설된 국경 요새이거나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대기에서 웃시야는 서쪽으로 블레셋 지역까지 확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페르시아나 헬레니즘 시대에 쓰여졌다면 그들이 그것의 중요성과 이 모든 실체와 정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왕국의 지정학적 지도를 보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는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노력의 동맹자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실제로 세 가지 방법으로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서쪽으로, 남쪽으로, 블레셋으로 에일랏까지, 그리고 동쪽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역대하 26장과 27장에 따르면 유다가 중앙 요르단 고원이나 성서의 하미 해안까지 확장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지도는 그 확장을 보여주지 않지만, 그곳이 이스라엘 영토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확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에 따르면, 그는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스돗 지역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아림 성읍들을 건설했습니다.

세펠라와 네게브, 심지어 해안 평야의 다양한 보고에서 언급된 매우 광범위한 증거는 강력하고 부활한 유다가 8세기 동안 서쪽으로 이동하고 확장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수리하고 도시를 재건하고 요새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기간. 다시, 철기시대 2B. 이제 지금까지 그 일의 대부분은 8세기 말 유다의 또 다른 강력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업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작품에서 히스기야는 웃시야보다 통치 기간이 훨씬 짧았습니다. 그 작업 중 일부, 건축 프로그램 및 요새화 노력 중 일부는 더 일찍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웃시야 통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서쪽에 대한 웃시야의 목표는 홍해 항구인 아카바 뿐만 아니라 해안을 따라 유다인의 입지를 다시 확고히 하고 적어도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어지는 국제 해안 고속도로인 중요한 고속도로의 일부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종종 Via Maris라고 불립니다. 웃시야의 블레셋 원정에 대한 역대기의 설명은 또한 유다 군대가 취한 원정 경로인 한 경로에 대해 드물게 기록된 원정 경로를 제공합니다. 그럼 Yavneh부터 시작하여 세 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야브네(Yavneh)는 텔아비브와 상당히 가까운 텔, 즉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하게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작은 언덕인 현장 근처에서 우연히 파비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사찰의 가구나 유물, 그릇 등을 보관하는 구덩이로, 의식적으로 매장하고 부수고 물론 사용 후에는 의식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인 Yav의 라즈 클레터(Raz Kletter)는 긴급 구조 발굴을 위해 그것을 발굴하고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 매우 잘 쓰여진 두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제 이 파비사는 분명히 사원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연대는 9세기 말, 8세기 초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유다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이는 이 성전이 늦어도 웃시야 통치 직전이나 아주 초기에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유적지는 아직 광범위하게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업이 있었지만 대규모 작업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Yavne은 당분간 여전히 일종의 중립 사이트입니다. 우리는 8세기 초에 웃시야가 어떤 종류의 파괴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텔레에스사피(Tel es-Safi)인데,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곳을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식별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다양한 슬라이드쇼나 PowerPoint 강의에서 이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9세기 후반, 4분기 초에 아람 다메섹의 하사엘에 의해 아주 분명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8세기 중반, 즉 웃시야 통치 말기에 우리는 60에이커 규모의 대규모 정착지를 갖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명확한 유대 물질 문화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장소 이전에 파괴층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사엘에 의해 파괴된 도시의 폐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웃시야가 멸망시켜야 할 성읍이 가드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고고학에 따르면, 750년에 유다인의 정착지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에 그다지 많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웃시야가 정착지를 건설했다는 것을 다시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무엇이든 파괴했습니까? 아마도 그 답은 이름에 있을 것입니다. 가드(Gath)는 압착기 또는 올리브 압착기를 의미하는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남부 레반트 지도에는 가스(Gaths)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Safi 북서쪽에 Tel Ras Abu Hamid라는 장소로 확인된 Gath-Gitayim이라는 또 다른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웃시야의 가드의 후보일 수 있으며 8세기 초의 직업적 증거를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이트는 완전히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보고서가 있고 굴착기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그를 볼 때마다 그는 '미안해요. 아직 아부 하미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작업 중이에요'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야브네는 실제로 8세기 초 파괴층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 텔에스사피에는 현재까지 8세기 초에 파괴된 층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웃시야 통치 기간에는 유다의 점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가드, 아마도 가드-기타임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은 웃시야가 실제로 공격한 가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돗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우리가 이전에 논의한 것처럼 블레셋의 다섯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적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사한 문과 밀접하게 평행을 이루는 커다란 6개의 방 문이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 기간에 이 성문은 하솔, 므깃도, 게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게이트가 있습니다.

네게브의 유적지인 텔 이라(Tel Irah)에도 또 다른 문이 있는데, 이 역시 비슷한 문이 있는 8세기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발굴자인 모셰 도단(Moshe Dothan)은 이 문이 파괴된 것을 웃시야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성경을 읽고 아스돗이 웃시야에 의해 또는 적어도 그 일부가 파괴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문은 실제로 웃시야가 성을 점령한 후에 세운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분명히 유다식 문임이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라멜렉 도장이 찍힌 손잡이와 히브리어 비문도 유다인의 지배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 외곽의 기지인 교외 지역에서 회수 발굴 작업을 통해 아시리아 행정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래에 두 개의 8세기 파괴적인 층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8세기 후반에 사르곤이 아스돗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는 역시 8세기의 파괴층이 있습니다.

나는 8세기 초에 파괴된 층이 웃시야가 그 도시를 파괴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도시 밖인데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아스돗을 위한 흡연 층이라고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스돗은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완전히 출판되었지만 출판물은 현장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그곳에서 미래의 발굴 작업이 있을 것이며 적절한 층위를 찾을 수 있고 도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8세기 두 번째 파괴적 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웃시야는 아스돗 부근과 블레셋에도 성읍들과 아렘과 마을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고고학 조사에서는 Yavne Yam, Rishon Litzion, Metzad HaShav Yahu, Holot Yavne, Telmor 및 Ashkelon과 Gaza 방향으로 더 남쪽에 있는 기타 유적지에서 8세기 직업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조사되고 부분적으로 발굴된 이 새로운 유적지는 블레셋 주변과 아스돗 근처의 새로운 유대인 정착지로 웃시야를 섬겼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역대기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도 웃시야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Maunites는 성경 본문 외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Chaim Tadmor가 Tiglath-Pileser III의 연대기에서 그들의 이름을 읽은 1970년이 될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인들이 맞서 싸운 베두인족이나 아라비아족이었습니다.

역시 8세기, 8세기 후반 아시리아 왕입니다. 앤드류스 대학교가 발굴된 요르단 마다바 근처의 탈잘룰(Tal Jalul)에서 나온 증거 역시 비문과 하나의 동심원 피토스 손잡이로 인해 8세기 동안 유대인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는 사막에 망대인 migdalim b'amidbar를 세웠고, 보룻과 물탱크와 랍빔 등을 많이 파거나 팠습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웃시야는 유대 광야, 말하자면 예루살렘 동쪽의 유대 광야 일부에 정착하고 경작하려고 했습니다.

8세기에 우리는 유대 사막의 여러 지역, 특히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쿨란과 에인 게디 인근의 세 곳에서 관개를 시도한 증거가 있는 여러 요새화된 정착지와 준군사적 정착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cre 계곡과 더 남쪽에 있는 Metsad G ozal이라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성경 본문은 유대 광야를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드바르는 예루살렘 동쪽을 의미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유대 광야보다는 여기에서 언급된 네게브 정착지나 네게브 고원을 보고 있습니다. 실수.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의 이름", 문자 그대로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의 이름에 대한 지식, 명성을 번역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가 심히 강함을 인하여 애굽 국경까지 퍼졌느니라." 나는 연대기 작가의 이 인용문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Kuntillet Ajrud 사이트를 언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도자기와 유다 도자기가 모두 있는 시내산 동부의 매우 고립된 요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집트 국경에서 공동 점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웃시야의 이름이 이집트 국경까지 퍼졌다는 이 인용문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입니다.

그는 국경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Kuntillet Ajrud가 문안의 저장 항아리에 적힌 이러한 비문이나 기도문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순례를 하기 위해 순례자로서 여행했던 단순하고 단순한 종교적인 장소였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실제로 국경 지역이자 교역소였으며 하자(Hajjahs)와 지중해 사이의 캐러밴 루트를 따라 있는 중간 정거장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곳은 종교적 순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최종 보고서의 제목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대 시나이 국경에 있는 철기 시대 II 종교 유적지인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지정학적 국경지대였다. 여기서 순례하고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병사들이 저장용 항아리에 기도문을 쓰거나 적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알았어, 예루살렘.

웃시야는 예루살렘에서도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Yerushalaim의 Migdalim.

모퉁이 문, Al-Sha'ar Hapinah에서. 또 골짜기 문과 모퉁이에 미초아를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요새화했으며 아마도 그의 아버지 통치 중에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완료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고고학이 등장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Charles Warren, Kathleen Kenyon, 그리고 마지막으로 Eilat Mazar가 탐을 굴착했습니다. 그들 각각은 그것의 일부를 발굴했습니다.

다윗의 도시와 성전 산 사이에 있는 경사진 오벨 성벽을 따라 있는 왕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계곡문과 모퉁이문의 위치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서쪽 언덕으로의 초기 성벽 확장을 다시 반영할 수도 있고, 다윗성을 둘러싼 원래 방어벽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전혀 모릅니다. 바라건대, 그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퉁이 문은 아마도 죄송합니다. 여기 오벨 곁의 한 문은 웃시야가 지은 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Charles Warren의 그림에서 가져온 것이며 Eilat Mazar의 작업으로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전 산으로 향하는 오벨의 모퉁이를 따라 그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예술가의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작품은 웃시야의 작품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는 라마트 라헬(Ramat Rachel)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Benjamin Mazar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발굴되었고 그 다음에는 Aharoni에 의해 더욱 광범위한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Lipschitz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웃시야가 통치 말년에 성전에 분향하려 한 죄로 인해 일종의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나병과 같은 질병, 아마도 다른 질병이지만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성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별도의 집을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의 집(House of Freedom)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는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는 궁전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 수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라마트 라헬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의 유대 궁전인 이상적인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 르바임 계곡 상류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그 계곡 위로는 해안에서 좋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물론, 서쪽이나 동쪽으로 유대 광야 너머로 균열 속으로 내려가는 아름다운 경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Beit Hakerem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포도원의 집이 맞습니다. 역시 웃시야는 땅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맛 라헬 주변에는 넓은 계단식 논이 있었는데, 이는 그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왕의 재산을 위해 왕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과정의 아주 초기에 우리는 1931년에 재발견되어 출판된 웃시야의 묘비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시 다른 왕들과 별도로 묻힌 그의 무덤이 시대의 전환기에 언젠가 옮겨져야만 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서기 1세기, 재매장됨.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면 및 고고학 자료에서 나온 증거의 우세는 역대기의 웃시야 기록에 대한 8세기 지정학적 맥락을 뒷받침합니다.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특히 므투 사람에 대한 역대기의 언급은 모두 잘 문서화된 8세기 정치를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게르발, 에일랏, 가드, 아스돗, 야브네와 같은 유적지에 대한 역대기의 언급은 반드시 후기 페르시아나 헬레니즘 시대에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걸 만든 사람이 제대로 쓰려면 8세기 지형을 많이 알아야 할 것이다.

산지, 서부 세펠라, 유대 광야, 네게브, 에일랏에서 유대인 정착지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확장되는 일은 히스기야 통치 기간뿐만 아니라 8세기 전반에 걸쳐 발생합니다. 아스돗에 있는 방이 여섯 개 있는 솔로몬 성문과 델에스사피에 있는 유대인 정착지와 해안 평야의 다른 장소가 파괴되었다는 증거는 역대하 26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서쪽 언덕과 역대하 26장 9절에 언급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성벽과 문의 증거는 본문의 역사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합니다.

이집트 국경을 따라 Kuntillet Ajrud 또는 Horvat Timan(같은 이름)에서 이스라엘 왕국과의 공동 지정학적 작전과 중앙 요르단 고원의 Tel Jalul에서 유대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역대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입증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대기 작가가 후기 페르시아 또는 헬레니즘 시대의 환경이나 템플릿을 사용하여 이 설명을 창안했다는 견해에는 본질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대기는 유다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왕정 시대의 기록 자료에 명확하게 접근하면서도 선택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Finkelstein이 사이트의 역사성에 반대하는 그의 기사에서 Meunites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세기 티글라트필레세르(Tiglath-Pileser)의 비문을 통해서만 알려진 Meunites에 대해 누군가가 늦게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으로도 고고학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역사성을 보여 준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1입니다. 한 고고학자가 웃시야의 통치를 살펴봅니다.